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상승한 1,101.3원으로 마

전일 환율은 위험 회피 분위기 속에서도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크게 출회되며 상승폭이 제한되었다.

최근 불거진 도이체뱅크 사태에 대한 우려로 이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이날 환율은 장중 한 때 1,1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대거 유입되며 1,090원대 후반까지 레벨을 낮췄다. 다만 장 막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원 환율 역시 동반 상승해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상승한 1,101.3원에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이날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12.01원 상승한 1,092.39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03.00	1106.20	1097.80	1101.30	1102.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86.17	1088.00	1082.86	1083.22

금일 전망

도이체뱅크 이슈로 1,100원대 초중반 상승 전망

금일 환율은 도이체뱅크 관련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은 전일 대비 1.95원 상승(스왑포인트 고려)한 1,103.5원으로 마감하였다. 최근 도이체뱅크 이슈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며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는 한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일 환율은 강화된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 제조업 지표 역시 호조를 보인 만큼 금주 후반 예정된 미 9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롱플레이가 강화되며 금일 환율은 1,100원대 초중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97.33 ~ 1109.17 원

체크포인트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558.16억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95원 ↑

美 다우지수 : 18253.85, -54.3p(-0.3%)

전일 환율 변동률(달러/원) : 0.2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송합) : 97.7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76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